

제20회 전북경제대상 수상자 확정

대상 '창해에탄올' · 경영인 '삼양화성 이영훈 대표이사' · 기업 '풀무원다논'

전북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을 선정하는 제20회 전북경제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전북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우수 기업과 경영인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올해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23일 전북경제대상 대상에 (주)창해에탄올, 본상 경영인 부문에 삼양화성(주) 이영훈 대표이사를, 본상 기업 부문에 풀무원다논(주)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창해에탄올 이연희 대표이사 삼양화성 이영훈 대표이사 풀무원다논 홍영선 대표이사

대상을 수상한 (주)창해에탄올(대표이사 이연희)은 1966년 창립 이후 60여 년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효 및 정제 생산량 기준 대한민국 주정업계 1위 공장으로 성장한 전북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공정 혁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객 신뢰를 확보하며 지역 산업을 선도해 왔다.

특히 2011년 보혜양조 인수·합병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2014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ESG 경영을 기업 핵심 가치로

삼아 방류수 재활용, 슬러지 사료화,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 등 친환경 공정 혁신을 추진하며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성실한 납세와 투명한 윤리경영,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 성장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상 경영인 부문 수상자인 이영훈 삼양화성(주) 대표이사는 '사람 중심의 경영'과 '노사 상생 협력'을 경영이념으로 삼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온 점이 인정됐다.

1995년 삼양그룹 입사 이후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도 탁월한 상황 판단과 조직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노사상생 TFT를 직접 구성·운영하며 단체협약 정비 등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열린 소통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켰다. 아울러 공정 자동화와 스마트 제조 혁신, 근로환경 개선,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병행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선 모범적인 경영인으로 평가받았다.

본상 기업 부문 수상자인 풀무원

다논(주)(대표이사 홍영선)는 2009년 무주에 터를 잡은 이후 국내 유제품 산업을 선도해 온 기업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신선 유제품으로 더 행복한 내일을 선사한다는 기업 이념 아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풀무원다논은 무라벨 제품 도입, 포장재 경량화, 태양열 에너지 설비 구축 등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간 300톤 이상의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Smart HACCP 인증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중심 품질관리, 그릭 요거트 등 주력 제품군의 시장 점유율 확대 역시 이번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제20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은 오는 2026년 1월 5일 오전 11시, 호텔리안 전주에서 열리는 '2026 신년인사회' 행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모바일 도시가스 서비스 운영

전북도시가스, '가스앱·가스톡·특결제' 내년부터 본격 개시

전북도시가스가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모바일 기반 통합 고객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전주·완주·김제·남원·순창·무주·고창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전북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이용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스톡',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 '가스톡', 카카오톡 요금 납부 서비스 '특결제'를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서비스는 요금 조회와 납부, 자동이체 신청, 이사에 따른 전출입 예약 등 도시가스 이용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가스톡'을 설치하고 회원 등록을 하면 실시간 요금 조회와 납부를 비롯해 자동이체 신청 및 변경, 자가 검침 등록, 전출입(이사) 방문 예약 등 주요 도시가스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전화 상담이나 방문 예약을 위해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면서, 고객들은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보다 효율적으로 도시가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앱 설치가 부담스러운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마련됐다. 전북도시가스는 카카오톡 기반 상담 서비스인 '가스톡'을 통해 별도의 앱 설치나 복잡한 회원가입 없이 도시가스 관련 문의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결제' 서비스를 활용하면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전자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어 청구서 분실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까지 고려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도시가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전북도시가스는 서비스 본격 오픈을 기념해 가스앱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 임대주택 우수 관리사무소 선정·포상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가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관리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5년 임대주택 우수 관리사무소'를 선정해 포상한다.

전북개발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와 위탁관리업체의 수행 능력 평가 점수를 종합해 우수 관리사무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입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관리 서비스의 수준과 대응 역량, 전반적인 관

리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공사는 이를 통해 관리사무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포상은 입주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 관리 사례를 다른 임대주택 단지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전반의 관리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강습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23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회원사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습회는 전문건설업체의 실적신고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회원사 실무 담당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공공공사 입찰 실무부터 건설근로자 제도, 실적신고 절차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아이건설넷 전자입찰교육원의 이도원 강사가 공공공사 입찰 실무 전반에 대해 설명하며, 입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어 두 번째 강의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정경호 대리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에 대해 소개하고, 제도 도입 취지와 현장 적용 방법을 안내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회 회원지원부 최연환 부장이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실적신고에 활용되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 사용 방법과 시공능력평가 제도, 최근 개정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져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이날 강습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강의 자료와 실적신고 작성 안내서를 협회 홈페이지(https://jeonbuk.kosca.or.kr) 자료실에 게시해, 실적신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한국훈련 4년 연속 '우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국훈련에서 뛰어난 재난 대응 역량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대형 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실제 발생 가능성을 가정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합동훈련이다. 상황 전과부터 대응기구 운영, 현장 수습까지 재난 대응 전 과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훈련 기획의 적절성과 완성도, 현장 대응력,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반적인 재난 대응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IS)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공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신종 재난에 대한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한국은행 국고업무 우수 금융기관 2년 연속 선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한국은행이 선정하는 국고업무 우수 금융기관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한국 금융산업 발전과 한국은행 국고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한국은행 국고업무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으로서 국고금 수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카카오펙과 국고금 수납점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

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케이뱅크와 추가 협약을 맺으며 관련 연계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를 통해 국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고업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은행 지급결제부문 송수신 부부장은 지난 23일 열린 시상식에서 국고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은행 총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